건강 먹거리 '정읍형 푸드플랜' 박차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지역 맞춤형 먹거리 선순환 구상
농가 조직화·거버넌스 운영 논의

지난 2일 정읍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유진섭 시장과 시의원, 생산자, 유통업체, 푸드플랜 TF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읍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푸드플랜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 시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가에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바른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지역 먹거리 여건, 이슈와 정책에 부합하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용역보고회와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등을 시행했다.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푸드플랜 비전과 전략 수립, 학교(공공) 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향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한 정향먹거리(바른 먹거리, 밝은 먹거리, 따뜻한 먹거리, 공감 먹거리, 특화 먹거리)'라는 비전 제시와 핵심 전략, 세부 추진사업, 예산 투자 등을 제시했다.

시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산 먹거리를 지역 내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조직화, 거버넌스 지속 운영 등 정책 통합과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푸드플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무연고 기초생보자 사망하면 군산시장이 명예 상주 맡는다

The-K 예다함상조와 협약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명예 상주가 되는 공공장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The-K 예다함상조와 플랜투스 등과 무연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장례용품 공급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무연고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장은 장례 기간 동안 명예 상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영장례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라면서 "더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75.8%

2단계 산단 부지 확장 추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률이 70%를 달성함에 따라 산단 부지 확장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률이 면적대비 75.8%에 달하고 116개 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2단계 산단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정헌율 시장과 전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식품 산업클러스터 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품 클러스터 1단계 역량 강화와 기능보강, 추가 개별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업단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추진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후 추진 여건이 성숙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식품산업은 IT, 자동차 산업보다 2~3배 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사랑가 재해석한 '흥' 음원·뮤직비디오 영상 공개

한복문화도시 홍보용 제작

남원시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사랑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흥[Korea Vibe]' 음원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음원과 뮤직비디오〈사진〉는 지난해 한복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과 한복의 만남을 통해 '한복문화도시 남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흥' 은 춘향전의 배경인 남원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의 만남을 춘향전 대표 판소리 '사랑가'와 힙합장르인 트랩(Trap) 비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곡은 '바운스 키즈'라는 듀오 멤버로 활동한 힙합가수 브로큰립스와 샤이너를 비롯해 남원시 홍보대사인 KBS개그맨 조래훈과 정진영이 가창을 도왔다.

또 라치카 소속 댄서 및 인플루언서인 뉴욕 출신 미국인 에밀리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해 뮤직비디오의 멋을 살렸다

'흥(Korea Vibe)'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주요 음원사이트와 '남원와락'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접목한 신나는 음악을 통해 흥과 멋이 어우러지는 고장, 남원의 관광명소를 즐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접수 시작

승용차 18대·화물차 30대
1500만원·2200만원까지 지원

순창군이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대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48대다. 이 가운데 사회적 공헌 또는 약자를 위한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3대는 우선하여 보급하게 된다.

또 법인이나 기관용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6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2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살 때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에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다.

사업신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영래 순창군 환경수도과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다양한 미세먼지 줄이기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쌀 전분 이용 바이오필름 개발 완료

고창군이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와 지역식품업체, 대학간 협력을 통해 쌀 전분을 이용한 바이오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미래형 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엄지식품(대표: 마영모)과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한 냉동볶음밥 관련, 쌀을 씻는 과정에서 인(P) 성분이 다량 포함되는데 이는 하천에 녹조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시 되어 왔다.

이에 1차년도에는 쌀 세정수에서 쌀 단백질과 쌀 전분 분리공정을 개발했으며, 2차년도에는 쌀을 이용해 전분의 기능성 소재화를 목표로 삼았다.

또 유화제와 안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 생산공정 확립 및 제품화 등을 진행했다.

3차년도에는 쌀 전분을 이용해 가식성 바이오필름을 만들어냈다. 쌀 소재 천연 첨가물 제조기술을 개발해 만두 제품에 접목해 현재 판매 중에 있다.

군은 연구소와 관내·외 기업과 기존의 베리류를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및 보리류 등 다양한 특화작물을 이용한 소재개발을 접목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박성기 고창군 농어촌식품 과장은 "고창의 청정 이미지와 품격있는 농산물의 다양한 소재 개발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이끄는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